

직장신행단체

여름휴가를 해외성지순례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알차게

직장신행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가 늘고 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단체들은 각자 '맞춤형' 순례를 준비하고 있다. 실크로드여행사 이상원 사장은 "5~6년 전에 비하면 직장불자들의 해외성지순례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한다.

사실 직장신행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 초기만 하더라도 성지순례보다는 여행이 주 목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성지 자체가 하나의 관광코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7월 30일~8월 5일 중국 보타산과 황산, 구타산 등지로 다섯 번째 해외성지순례를 떠나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 이하 공불련) 박현남 간사는 직장불자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 간사는 "직장불자단체들의 경우 조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먼저 내실 있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서)는 8월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불교문화유적을 돌아볼 예정이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보라)는 이에 앞선 6월 30일~7월 5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성지를 찾을 계획이다.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진행되는 직장신행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 어떻게 하면 집합할 수 있을까?

순례노트 만들고 정보 수집·기록

방문지 풍습·역사·문화 알고 가야 단기 수행프로그램 참가 뜻깊어

아는 만큼 보인다

건설교통부 불자회에서 활동하는 이형 과장. 이 과장은 공불련이 개최하는 해외성지순례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이형 과장은 처음에는 주위 도반들과 함께 떠난다는 기쁨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순례 노트'를 만들어 성지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있다.

이 과장은 "공무원 불자들은 여러 차례 성지순례를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며 "노트를 통해 성지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또 순례가 끝난 뒤에 보충을 하면서 성과를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 과장은 또 방문지의 풍습이나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지식이나 지도법사와 함께 하자

조계종 교육원 박희승 불학연구팀장은 해외성지순례는 선지식이나 지도법사와 함께 가야한다고 말한다. 5년 전 동료들과 함께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성지를 찾았던 박 팀장은 관광외의 실질적 '소득'은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 현지에 대한 설명이나 수행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박구원

“여행 아닌 구도입니다 공부하세요!”

박 팀장은 "직장신행단체들은 보통 스님이나 재가자를 지도 법사로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성지순례에서도 지도 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전국선원장 스님들과 함께 중국성지순례는 중국 조사(祖師)들의 숨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회고했다.

올해 1월 정토회가 실시한 '법륜 스님과 함께 하는 인도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참가했던 우정현(26·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씨도 "법륜 스님의 상세한 설명 덕분에 부처님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행법 체험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

서울 보리수선원에 다니고 있는 이승란씨는 지난해 2~4월 3개월간 미얀마로 가서 위빠사나 체험을 하고 왔다. 동작구 실버타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3개월간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이씨는 "현실적으로 직장불자들이 몇 개월씩 시간을 내서 성지순례와 체험할 수 없는 하루나 일주일단위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추천한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단기 프로그램을 체험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도 "성지순례에서 수행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남방이든 북방이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순례를 떠나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새롭게 발신하는 기회

내년 1월 보름 일정으로 인도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 회장은 벌써 성지순례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성지순례가 수행의 종점이 아닌 또다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교사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리공부나 간화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해외성지를 돌아보며 다시 발심(發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도반들과 함께 더 열심히 수행활동을 해야 성지순례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해양경찰청불자회 27일 창립

해양경찰청에 불자회가 창립됐다.

해양경찰청 불자회는 6월 27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5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불자회는 김장권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하고 인천 수미정사 주지 종연 스님과 서울 원각사 주지 활종 스님이 경승을 맡아 회원들의 수행활동을 돕는다.

김장권 회장은 "앞으로 정기법회와 기초교리 강좌, 사찰순례 등을 통해 수행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불자회가 창립된 것은 지난 2004년 10월 인천해양경찰서 이후로 이변이 두 번째다.

유철주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자비실천은 내 인생의 목표”

은평구청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최명숙 과장은 불교와 문화, 복지를 접목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서원하고 있다.

보다 주거공간이 많다보니 복지 관련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광3동 동장으로 재직하다 가정복지과에 온지 1년 남짓밖에 안됐지만 최 과장은 벌써 경로당 3곳과 어린이집 1곳을 신축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노는 것을 볼 때면 더 힘이 생기고,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최 과장은 50여 은평구청 불심회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수행활동에는 빠지지 않는다.

꼭 불심회 부회장이어서가 아니다. 은평구 사원연합회와 불심회가 6월 15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18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 때도 최 과장은 아낌없이 법회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명 여중·고를 다녔는데, 당시에는 학교가 조계사 앞에 있었습니까. 조계사 범종소리를 들으며 불심(佛心)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집에서 가까운 일산 여려사를 다니며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최 과장은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한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중생을 연민하며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최 과장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

"불교와 복지, 문화를 접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가 어우러진 일을 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 108배를 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하려 합니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불자라면 보통 한두 개, 많게는 몇 개씩의 법명(法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자 쓰는 '대표' 법명은 따로 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스님에게서 받은 법명이나 왠지 자신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법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은평구청 최명숙(53) 가정복지과장도 10여개에 이르는 법명을 가지고 있지만, '자비심'이라는 법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간단한 듯 하면서도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말이 저의 평생 화두죠. 그래서 이 법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소임이 최 과장에게는 '천직'과 같은 존재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성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유아·어린이 담당), 청소년복지 등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된 가정복지과가 떠나보내지 못한 부서로 운영되는 것도 최 과장의 이러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후배직원들은 귀띔한다.

"인구 47만명의 은평구는 사무공간

이화청기와공장
KSS형 청기와
장당 3,500원 도착 (하차별도)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당 1,500원 도착 (하차별도)
문 041)554-0112(천안)
의 011-9820-0112(직)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금호필름의 특징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열선타인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당일 시공하고 당일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께가 얇고 경량이라서 건물외벽에 영향을 없습니다.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기존 전기난방의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제품의 수명이 긴 영구적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한 가득 훈기 탁월합니다.
절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 가능합니다.
혹한에도 동파 걱정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은 바닥 따뜻한 일부 전기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지에서 설치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금호 에너지 KUMHO EnerTech Co. 상담/문의 031)422-0467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기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1차 : 7월 8일 - 8월 1일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련문의 및 신청 :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圖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 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서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아를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까지도 뭐가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인체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채, 잇몸무늬, 잇몸농종,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승우